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An Effect of Cohesion & Adaptability on Role Conflicts
of Dual-Earner Couples

부산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金秀娟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金得星

Dept. of Home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
Kim, Soo Yun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Kim, Deuk S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 III. 연구방법 | IV. 결과 및 배경 |
| V.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effecting the role conflicts of dual-earner couples. The sample consisted of 168 husbands and wives living in Pusa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Husbands' role conflicts were negatively related to cohesion, wives' role conflicts were negatively related to adaptability.
2. Husbands' role conflict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spouses' support, time spent at work, cohesion and the youngest child age.
3. Wives' role conflict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spouses' support, adaptability, time spent at work and the degree of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I. 서론

현대사회의 특징중 하나가 여성 취업률의 증가로서,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두드러진다. 소비수준의 향상에 따른 추가소득의 욕구와 더불어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최규련, 1993). 교육기회의 증대, 취업 욕구의 증가,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등으로 인해 기혼여성의 취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이고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 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시간의 부족과 함께 여러가지 역할수행에 따른 긴장을 경험한다. 특히 아내는 가사업무와 자녀양육에 따른 지나친 피로를 경험하며, 다양한 역할 요구에 필요한 에너지, 시간, 노력의 고갈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취업 여성은 남편이 가정 역할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남편은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고 한다. Hall (1972)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특정한 역할내에서 부딪히는 기대이기 보다는 다중역할에서 비롯된 역할갈등이라고 하였고, Voydanoff(1988)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시간, 에너지, 참여라는 면에서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중 역할은 역할갈등을 낳게 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은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야기되는 역할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 아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취업은 가족원의 행동 뿐 아니라 배우자 상호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부부는 생활하는 장이 서로 달라서 생활 경험이 다르며 또한 태도·감정·가치도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할 때(옥선화, 정민자, 1984), 아내와 남편이 느끼는 역할갈등 역시 다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족 스트레스 연구자들은 가족이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할 때, 가족체계의 내적자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Olson, Sprenkle 및 Russell (1979, 1983)의 순환모델은 응집과 적응을 중심으로 가족체계를 분류하였는데, 응집과 적응은 스트레스

이론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가족체계의 내적자원 역할을 한다. 이때 자원이란 사건이나 변화가 위기로 나가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Galvin & Brommel, 1986; Lavee & Olson, 1991). 즉 응집과 적응이 중간 수준인 균형을 이룬 가족일수록 가족체계 자원이 풍부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 가설과는 달리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선행적 결과를 주장하였으며(김수연, 김득성, 1993; 김진희, 1989; 민하영, 1992; 박초아, 1987; 홍성애, 1988; Barns & Olson, 1985; Beavers, Hampson, Hulgus, 1985; Lee, 1988; Miller, Epstein, Bishop & Keitner, 1985; Pratt & Hansen, 1987; Perosa & Perosa, 1990), 그 이유로 응집과 적응을 측정하는 FACESⅢ 척도가 부분적으로 선행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득성, 김수연, 1993; Noller & Shum, 1990). 그러므로 응집과 적응을 선행적인 개념으로 두고, FACESⅢ의 적응 척도 가운데 공식적인 문항을 수정하여 FACESⅢ를 선행성을 지닌 척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할갈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을 밝히고 그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응집과 적응 역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심리학적 변인은 역할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응집과 적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응집과 적응은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가족기능의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각각의 변인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응집과 적응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인과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자원으로서의 응집 및 적응이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맞벌이 부부 양방을 대상으로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파악하고, 가족체계 자원이 역할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특성을 부분적으로나마 밝히는 단기가 되고 또한 맞벌이 부부가 겪는 역할갈등을 줄

일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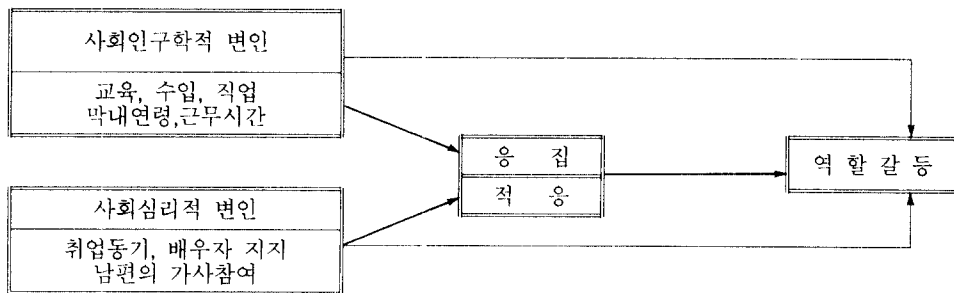
1.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역할갈등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에 따라 역할갈등은 차이가 있는가?
4.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에 관련되는 변인은 무엇인가?

를 형성하게 되며 또한 스트레스나 위기에 대한 저항력까지 갖추게 된다(이현옥, 김양희, 이경희, 홍병숙, 1989; 조병은, 1993; Galvin & Brommel, 1986; Lavee & Olson, 1991)는 것이다.

응집은 가족체계에서의 감정적, 정서적 차원을 나타낸 것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이다.

적응은 가족의 권력 차원을 나타낸 것으로서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 단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체계가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관계의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응집과 적응

가족의 위기해결에 대한 이중 ABCX모델에서 bb 요인은 심한 부조화나 혼란으로부터 가족을 방어해주는 능력으로 물질적, 심리적 자원을 말한다. 자원은 스트레스원, 긴장의 연속과 가족의 적응을 구별시키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이 모델에 의하면 많은 가족자원을 소유한 가족은 보다 효과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고 그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응집과 적응은 가족체계의 자원으로서, 가족의 응집과 적응 정도에 따라 성공적으로 가족 스트레스에 대처한다. 즉 가족이 융합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있는 상호관계를 이루는 가족은 정서적 안정을 얻어 바람직한 가족환경과 가족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적 가설을 검증하려는 많은 연구들의 결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응집 및 적응과 가족 기능간의 관계는 곡선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주로 문제가족과 정상가족을 비교한 연구였는데, 문제가족은 정상가족에 비해 균형을 이룬 가족의 비율이 낮고 극단의 가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순덕, 1987; Garbarino, Sebes & Schellenbach, 1984; Hundleby & Mercer, 1987; Olson, 1986). 두번째는 응집 및 적응과 가족기능간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균형을 이룬 가족, 중간범위의 가족, 극단의 가족은 별로 다르지 않으며 순환모델은 임상가족과 정상가족을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고 하였다(Green, Kolevzon & Vosler, 1985; Walker, McLaughlin & Greene, 1988). 세번째는 응집과 적응은 가족기능과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김수연, 김득성, 1993;

김진희, 1989; 민하영, 1992; Barnes & Olson, 1985; 박초아, 1987; 홍성애, 1988; Beavers, Hampson, Hulgus, 1985; Miller, Epstein, Bishop & Keitner, 1985; Pratt & Hansen, 1987; Perosa & Perosa, 1990). 네번째 결과는 응집은 가족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적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Green, Harris, Forte, Robinson, 1991; Hampson, Hulgus & Beavers, 1991).

이들 가운데 가장 주도적인 결과는 순환모델과 가족기능은 선형적이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순환모델을 측정하는 척도가 선형적이라는 데 있다. 즉 FACESⅢ 중 적응척도가 선형적 분향과 비선형적 분향을 함께 가지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김득성, 김수연, 1993; Hampson, Hulgus & Beavers, 1991; Lee, 1985; Noller & Shum, 1990;), 응집척도는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차원으로 가족기능과 선형적으로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Olson (1991)은 FACESⅢ의 선형성을 인정하면서 이 척도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3차원 순환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척도로는 응집의 밀착된 가족과 적응의 혼란된 가족을 측정할 수 없으며, 응집에서 높은 점수는 연결된 가족이고 적응에서 높은 점수는 융통적인 가족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응집과 적응이 모두 높을 때가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며 응집과 적응이 모두 낮을 때가 극단의 가족이라는 재개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역할갈등

아내의 취업이 부부의 결혼생활과 심리적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지위경쟁·갈등가설, 아내 취업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지위확장·지원가설 그리고 아내 취업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보는 공평가설이 있다(최규원, 1993). 그 중에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취업주부의 다중역할수행 결과 가족역할의 재조직 과정에서 역할과중, 역할기대의 불일치, 시간제약과 에너지 고갈 등이 초래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역할긴장 및 갈등이 증가하고 부부간

의 상호작용이 감소되어 부부관계의 균형이 깨지게 됨으로써 부부관계의 질과 안정성 그리고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역할갈등을 다루고자 한다.

역할갈등은 역할요구에 비해 시간이 너무 적을 때 발생하는 역할과중,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데서 오는 역할 양립불가능, 역할기대와 역할 양립불가능의 모순에서 비롯된 역할 방해, 역할 모호성 등으로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고, 서로 엄격한 구분없이 혼용되기도 한다(전영자, 1991). 여기서는 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역할과 관련된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라고 본다.

Skinner(1980)는 맞벌이 가정의 역할갈등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과도한 일과 역할임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가장 보편적인 문제이다. 둘째, 전통적 성역할의 사회화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통적 남녀 역할을 당연시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양성성의 확립을 갈등이 되고 있다. 셋째, 현대 가족의 특성으로서 핵가족의 고립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가족주거나 자녀의 유무는 젊은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 넷째, 규범적인 문제로서 사회규범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의 생활 형태는 전통적 가족의 규범에 역행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직장 이동이나 자녀 출산같은 문제가 규범적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다섯째, 직업적인 구조로서 지역적인 이동, 전일제 근무, 일에 대한 압박, 노동시간의 엄격성, 직업내의 성차별 등은 맞벌이 부부의 긴장 원천이 된다. 여섯째, 사회적 관계 유지와 사회화를 위한 시간의 부족과 제한 때문에 스트레스가 유발된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맞벌이 부부에게 작용하므로 이들은 다양한 역할갈등을 겪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은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아내를 중심으로 조사되었고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남편이 느끼는 역할갈등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 취업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순옥, 1973; 이동원,

1976)에서 부인이 취업함에 따라 아내의 피로와 건강악화, 생활불만이 쌓여 남편에 대한 서비스, 가사일, 자녀양육을 소홀하게 함으로써 남편이 갈등을 느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참여를 요구하는 아내의 압력, 의사결정 시 부인의 발언권 강화등의 이유로 남편이 갈등을 느낀다고 하였다(Stanley, Hunt & Hunt, 1986; Voydanoff & Kelley, 1984; Kelley & Voydanoff, 1985).

본 연구에서 역할갈등은 여러 역할을 수행할 때 느끼는 시간부족과 시간제약, 두 가지 역할양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시간 요구에서 일어나는 역할갈등 및 심리적·신체적 긴장과 피로등을 의미한다.

3.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으며(임정빈, 정혜정, 1986; Voydanoff & Kelley, 1984),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갈등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Voydanoff & Kelley, 1984), 이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인적, 물질적 자원의 활용도가 높고 융통성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막내자녀 연령은 역할갈등과 의미있는 관계가 있으며 특히 자녀가 없을 때 역할갈등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다(Voydanoff & Kelley, 1984; Kelly & Voydanoff, 1985). 이는 자녀양육의 부담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임정빈, 정혜정(1986)의 연구에서는 막내자녀의 연령과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는 관계가 없었다. 한편 아내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역할갈등은 낮다(Keith & Schafer, 1980)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역할갈등은 연구마다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2) 사회심리적 변인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동기, 배우자의 지지, 남편의 가사참여를 다루었다. 취업주부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적인 취업동기, 남편의 지지가 낮을 때 역할갈등은 높았으며(Holahan & Gilbert, 1979; Keith & Schafer, 1980; Walter & Mckenry, 1985; Voydanoff, 1988; 임정빈, 정혜정, 1986; 강성희, 1989; 구혜령, 1991), 사회심리학적 변인에 따른 역할갈등은 일관성이 있었다.

4. 응집 및 적응과 역할갈등

가족체계 자원과 역할갈등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역할갈등보다 포괄적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Lavee와 Olson(1991)은 응집과 적응을 가족 스트레스 모델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 변수로 인식하여, 사분면을 사용한 가족체계 유형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가족체계 유형과 스트레스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특히 응집이 낮은(분리된) 가족보다 응집이 높은(연결된) 가족이 가족자원이 더 많고 보다 효율적인 대처행동을 보였다. 적응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는 적응이 낮은(구조적인)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의 위기에서는 강하였으나, 적응이 높은(융통적인) 가족일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더 뛰어났다(Hansen & Johnson, 1979). 그리고 융통적인 가족보다 구조화된 가족일수록 가족 스트레스가 더 낮았는데, 이것은 구조화된 가족이 역할과 규칙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스트레스에 대해 심리적으로 잘 통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현옥 등(1989)은 응집과 적응이 가족 스트레스와 부적의 관계가 있어 이 변수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응집보다 적응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정민자(1992)는 응집과 적응을 Olson의 분류에 따라 세가지 가족체계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균형을 이룬 가족, 중간범위 가족, 극단의 가족간에 가족의 전체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부 생활상의 긴장은 중간범위 가족이 가장 높고 균형을 이룬 가족이 가장 낮다고 하였다. 이것은 FACESⅢ의 선형성을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타단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성을 전제로 한 응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이며,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질문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척도구성을 위해 1993년 11월20일에서 25일까지 예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는 1993년 12월 2일에서 17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부산시내 3개 유치원, 7개 국민학교, 2개 고등학교에서 맞벌이 교사와 맞벌이 학부모를 둔 학생을 대상으로 총 500부(250쌍)를 배부하였다. 해당 교사와 학생은 가정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부에게 응답을 받아 다시 학교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그 결과 수집된 자료는 총 386부였고, 이 중에서 내용기재가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여 336부(168쌍)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2. 조사 대상자의 특성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아내가 35.2세, 남편이 38.4세이며 교육 수준은 고졸이상이 아내가 79%, 남편이 83%이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원이고, 평균 자녀수는 2명이었다. 막내자녀의 평균연령은 9.5세로 4세 이하의 경우가 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취학아동으로 36.7%로 나타났다. 아내의 직업은 행정관리직과 전문직이 39%, 자영업이 22%, 단순노동직이 17%, 사무직이 15%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직업은 자영업이 28%, 사무직이 25%, 단순노동직이 19%, 행정관리직이 9%, 전문직이 17%로 나타났다. 아내의 취업동기는 기본적인 경제문제가 42%, 자아실현이 30%, 활동적인 생활이 9%, 경제적 여유가 8%순으로 비경제적인 이유(자아실현, 사회

활동 참여)가 48%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9시간 이하가 82%으로 가장 많았다.

3. 측정 도구

1) 응집과 적응

응집과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Portner 및 Lavcc(1985)가 제작한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FACESⅢ) 중 부부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그 중 적응에서 극성적 성격을 띤 5개 문항을 선행적이 되도록 수정하여¹⁾ 사용하였다. 응집은 10개의 홀수 문항으로 정서적 유대, 경계, 취미와 레크레이션, 시간, 친구 그리고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응은 10개의 짝수 문항으로 권력구조, 역할관계, 타협방식, 관계규칙에 대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응답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응집과 적응의 각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전체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과 적응은 높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는 아내의 경우 응집이 $\alpha = .89$, 적응이 $\alpha = .85$ 이었으며, 남편의 경우 응집이 $\alpha = .87$, 적응이 $\alpha = .88$ 이었다.

2) 역할갈등

역할갈등 척도는 부부 각자가 직장과 가정에서 느끼는 역할갈등을 측정한 것으로, Voydanoff와 Kelly(1984, 1985), 구혜령(1991)의 연구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갈등 척도 문항은 남편과 아내가 생활하는 장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르게 구성하였다. 남편의 역할갈등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공통 4개문항과 아내의 취업으로 인한 가사일에 대한 불만족, 의사결정권의 감소, 재산 관리권의 감소, 시간 부족에서 오는 시간갈등에 대한 내용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8$ 이었다. 아내의 역할갈등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공통 4문항과 직장인, 어머니, 아

1) 예)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할 때마다 다르다. ⇒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융통성이 있다.

내, 주부역할 등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며, 신뢰도는 $\alpha=.73$ 이었다.

3) 배우자의 지지

배우자의 지지 척도는 Holahan과 Gilbert(1979), 구혜령(1991)의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남편용은 총 6문항이고 아내용은 7문항으로 4문항은 부부공통이다. 문항 내용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배우자가 보이는 이해, 관심, 호의적인 태도, 협조등을 지각한 것이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신뢰도는 $\alpha=.69$ 이었다.

4) 남편의 가사참여

남편의 가사참여는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을 100점으로 환산할 때 아내와 남편의 참여정도를 기입해 달라는 개방형 질문이었는데, 이때 남편의 참여정도를 점수로 사용하였다. 남편용은 남편 자신이 지각한 참여정도에 대한 백분율이고, 아내용은 아내가 지각하는 남편의 가사참여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 정도는 높다.

4. 분석방법

일반적 경향을 알기위해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가 사용되었고 차이검증을 위해 t-test, F-test가 사용되었으며, 변인들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이 사용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응집 및 적응과 역할갈등의 전반적 경향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응집 및 적응과 역할갈등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1>과 같다.

남편과 아내의 경우 응집 및 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은 모두 3점이상으로 중간수준보다 높았다.

FACESⅢ를 사용한 이숙현, 민혜영(1985)의 연구와 Olson등(1985)의 응집평균은 3.5~3.7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적응평균은 2.4~2.9로 본 연구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응척도가 선형적으로 수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의 역할갈등은 2.8점으로 중간(3점)보다 낮았고, 아내의 역할갈등은 3.2점으로 남편보다 아내의 역할갈등 정도가 높았다($P<.001$). 이 결과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구혜령(1991)의 연구보다는 약간 낮은 경향이다.

2. 사회인구학적, 사회심리적 변인에 따른 역할갈등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에 따른 역할갈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역할갈등

남편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역할갈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아내의 경우 역할갈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

<표 1>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역할갈등의 전반적 경향

변 인	남 편			아 내		
	문 항 수	문항평균	표준편차	문 항 수	문항평균	표준편차
응 집	10	3.5	0.6	10	3.6	0.7
적 응	10	3.6	0.5	10	3.6	0.7
역할갈등	15	2.8	0.6	12	3.2	0.7

(표 2) 사회인구학적,사회심리적 변인에 따른 역할갈등

변인	구분	남편	아내	
		역할갈등	역할갈등	
사회인구학적 변인	수입	하(185만원 미만)	41.4 (97)	38.9 (95)
		상(185만원 이상)	39.4 (37)	36.6 (33)
		t값	t = 1.25	t = 1.3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4.9 (17)	39.4 (23)
		고졸	30.2 (41)	35.0 (40)
		대졸이상	30.9 (83)	34.7 (69)
		F값	F = 2.74	F = 0.28
	막내 자녀 연령	자녀없음	38.0 (36)	35.1 (36)
		1-4세(영유아)	40.0 (19)	35.7 (24)
		5-7세(미취학)	42.5 (22)	34.4 (18)
		8-11세(저학년)	37.6 (25)	34.4 (25)
		12세 이상	40.8 (32)	36.5 (29)
	F값	F = 0.95	F = 0.43	
	직업 종류	자영업	43.4 (40)	38.3 (28)
		단순노동직	39.9 (29)	34.5 (28)
사무직		41.7 (35)	33.7 (29)	
행정관리		41.0 (15)	38.3 (68)	
전문직		38.0(25)	*사례가 적어 행정관리직에 포함됨	
F값	F = 1.68	F = 1.87		
근무 시간	8시간 이하	40.1 (82)	37.1 (92)	
	8시간 초과	42.5 (66)	40.5 (52)	
	t값	t = 1.48	t = -2.56*	
사회심리 적 변인	취업 동기	비경제적	41.4 (61)	33.9 (78)
		경제적	40.9 (86)	36.9 (58)
		t값	t = .13	t = -1.57*
	배우자 지지	낮은 집단	44.2 (71)	40.2 (60)
		높은 집단	38.1 (72)	37.2 (75)
	t값	t = 4.64**	t = 2.40*	
	남편 가사 참여	낮은 집단	41.5 (91)	39.1 (85)
		높은 집단	40.4 (56)	37.2 (59)
		t값	t = 0.76	t = 1.42*

*P<.01 **P<.001

적 변인은 근무시간이었다. 즉, 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인 아내가 8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아내보다 역할갈등이 낮았다. 구혜령(1991)의 연구에서는 근무시

간에 따라 역할갈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정빈, 정혜정(1986), Holahan & Gilbert(1984), Voy-

danoff(1988)의 연구에서는 근무시간에 따라 역할갈등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Keith와 Schfer(1980)는 근무시간이 역할갈등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 막내자녀 연령(Voydanoff & Kelly; 1984), 교육(임정빈, 정혜정, 1986; Voydanoff & Kelly; 1984), 수입(Voydanoff & Kelly; 198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대체로 연구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영향은 일관성이 없었다.

2) 사회심리적 변인에 따른 역할갈등

남편의 경우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은 배우자의 지지였다. 즉 배우자의 지지가 높은 집단이 역할갈등을 적게 느꼈는데, 아내의 지지는 남편의 역할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내의 경우 역할갈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변인은 취업동기, 배우자의 지지, 남편의 가사참여의 세 변인이었다. 즉 아내들은 자신의 취업동기가 경제적인 목적이 아닐 때 역할갈등이 낮아지며 배우자의 지지, 남편의 가사참여같은 남편의 심리적, 물리적 도움이 역할갈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동기나 남편의 지지가 아내의 역할갈등을 줄이는 변인이라는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구태령, 1991; 임정빈, 정혜정, 1986; Holahan & Gilbert, 1984)와 일치하고 있어 사회심리적 변인과 역할갈등간에 의미있는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는 일관성이 있었다.

3. 응집 및 적응에 따른 역할갈등

남편의 경우 응집에 따라 역할갈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적응에 따라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내의 경우 남편과는 달리 적응에 따라 역할갈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의 경우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돈독하다고 지각하는 남편이 역할갈등이 낮은 반면, 아내의

경우 권력구조나 역할규칙이 융통적이고 변화능력이 뛰어나다고 지각한 아내집단이 역할갈등이 더 낮았다. 즉 응집과 적응이라는 가족체계 자원이 풍부할수록 맞벌이 부부가 겪는 역할갈등은 감소하였다. 이는 가족자원의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사회심리적 자원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족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상황에 잘 적응하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로 덜 인지한다고 하는 선행연구(Galvin & Brommel, 1986)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남편과 아내의 성차에 따라 가족체계 자원 중 역할갈등과 관계가 있는 변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표 3〉 응집 및 적응에 따른 역할갈등

	구 분	남 편	아 내
		역할갈등	역할갈등
응 집	낮은 집단	44.1(63)	39.4(60)
	높은 집단	38.6(73)	37.8(75)
	t 값	t=3.89**	t=1.40
적 응	낮은 집단	42.2(71)	39.1(67)
	높은 집단	39.9(68)	35.4(71)
	t 값	t=-1.52	t=2.62*

*P<.01 **P<.001

4. 역할갈등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과 인과모형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문제 2, 3의 결과 가운데 유의한 변인을 기초로 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표 4〉,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을 외생변수로, 응집과 적응을 내생변수로 그리고 역할갈등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역할갈등과 관련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통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총효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인과모형을 구성하였다(표 5). 분석에 포함된 관련 변수간에 다중공선성 여부와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표 4〉 종속변수와 내생변수의 회귀계수 및 결정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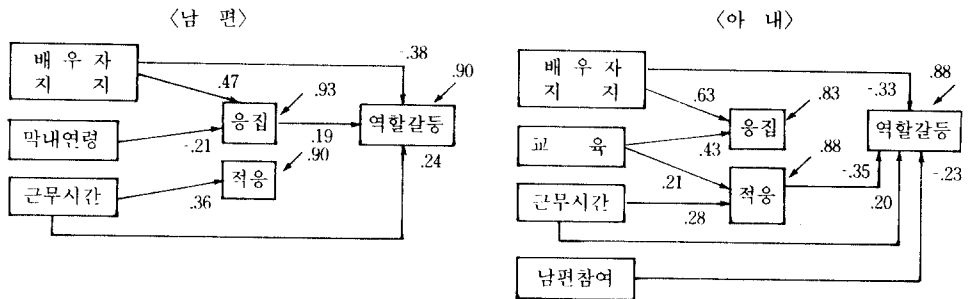
종속변수	남 편				아 내			
	독립변수	β	B	R ²	독립변수	β	B	R ²
응 집	배우자 지지	.47	.84*	.26	배우자 지지	.63	0.84*	.45
	막내연령	-.21	-.25*		근무시간	.27	-.79*	
적 응	배우자 지지	.36	.54*	.13	배우자 지지	.43	.52*	.31
					근무시간	-.28	-.75*	
				교육	.21	1.93*		
역할갈등	배우자 지지	-.38	-.91*	.19	적응	-.35	.41*	.23
	근무시간	.24	1.38*		배우자 지지	-.33	-1.11*	
	응집	-.19	-.17*		남편가사참여	-.23	.13*	
				근무시간	.20	.28*		

* P<.01

〈표 5〉 남편과 아내의 역할갈등의 관련변수 인과효과

	남 편			아 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막내자녀 연령	-	.04	.04	-	-	-
교육	-	-	-	-.07	-	-.07
근무시간	.24	-	.24	.20	.10	.30
배우자의 지지	-.38	-.09	-.47	-.33	.15	-.48
남편가사참여	-	-	-	-.23	-	-.23
응집	-.19	-	-.19	-	-	-
적응	--	--	--	-.35	-	-.35

〈그림 1〉 남편과 아내의 역할갈등의 관련변수 인과모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업과 수입간에 상관이 있어($r=.71$),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수입을 회귀분석시에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남편의 역할갈등은 배우자의 지지($\beta=-.38$), 근무시간($\beta=.24$), 응집($\beta=-.19$)에 영향을 받으며 이 세 변수는 남편의 역할갈등의 총변량 19%를 설명하였다. 즉 남편의 직업에 대한 아내의 지지가 많을수록,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응집이 높을수록 남편이 겪는 역할갈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남편의 역할갈등에 대한 각 변수의 직접, 간접효과, 총효과를 보면 배우자의 지지가 직접효과($-.38$)와 응집을 경유한 간접효과($-.09$)를 합한 총효과 $-.47$ 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변인은 근무시간($.24$)과 응집($-.19$)순으로 직접효과만을 미쳤다. 그리고 막내자녀 연령($.04$)이 응집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를 미쳤다.

배우자의 지지($.47$)와 막내자녀 연령($-.21$)은 가족체계 자원 중 남편의 응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는데 총변량을 26% 설명해 주고 있다.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막내자녀가 어릴수록 응집은 높았다. 이렇게 강화된 남편의 정서적 유대감은 다시 역할갈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아내의 역할갈등은 적응($\beta=-.35$), 배우자의 지지($\beta=-.33$), 남편의 가사참여($\beta=-.23$), 근무시간($\beta=.20$)에 영향을 받으며 이 네 변수는 아내의 역할갈등 총변량을 23%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적응이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남편이 가사일에 협조를 많이 해 줄수록,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아내의 역할갈등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아내의 역할갈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지지가 직접효과($-.33$)와 적응을 경유한 간접효과($-.15$)를 합친 총효과 $-.48$ 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적응이 직접적인 영향($-.35$)을, 근무시간이 직접효과와 적응을 경유한 간접효과를 합친 총효과($.30$)으로 영향을 미쳤다. 남편의 가사참여($-.23$)가 직접효과를 미쳤으며, 마지막으로 교육($-.07$)이 간접효과를 미쳤다.

배우자의 지지($.43$), 근무시간($-.28$), 교육($.21$)은

가족체계 자원 중 아내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총변량의 31%를 설명해 주었다. 배우자의 지지가 많을수록,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은 높았다. 적응은 다시 역할갈등을 줄이는 매개역할을 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체계 자원인 응집 및 적응이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가족문제 해결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역할갈등은 중간보다 낮았고, 아내의 역할갈등은 중간정도로 아내가 남편보다 역할갈등이 더 높았다.

둘째, 남편의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은 배우자의 지지였으며, 아내의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근무시간이고 사회심리적 변인은 취업동기, 배우자의 지지, 남편가사참여이었다. 또한 응집은 남편의 역할갈등에 적응은 아내의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편은 정서적인 긴밀함이 역할갈등을 줄일수 있는 자원인 반면 아내는 권력이나 역할규칙의 융통성이 역할갈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의 역할갈등에는 배우자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근무시간과 응집, 막내자녀 연령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내의 역할갈등 역시 배우자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이 적응, 근무시간, 남편가사참여, 교육이 영향을 미쳤다. 남편과 아내 모두 역할갈등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변수가 배우자의 지지였다. 아울러 가족체계 자원인 응집과 적응은 인과모형에서 역할갈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매개변인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적응 평균값이 선행연구보다 높는데 이는 FACESⅢ를 선행적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들은 FACESⅢ의 선형성을 가정

한 후 침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로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고찰할 때,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우자 지지였고,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근무시간이었다. 특히 아내는 남편과는 달리 남편의 가사참여가 역할갈등을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옥선화, 정민자(1984), 구혜령(1991)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는 다르게 수입이 가족자원이나 역할갈등을 설명해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입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 배우자의 지지가 역할갈등에 대한 가장 설명력 있는 변인이었다. 맞벌이 부부에게도 수입같은 경제적 이거나 물리적 요인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며 도와주는 인간관계의 심리적 지원변수가 맞벌이 부부의 삶을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무시간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갈등을 설명해 주는 변인이었는데, 적은 근무시간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제약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이런 시간적 여유는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가사일을 도와주는 남편의 배려가 있을 때 아내의 역할갈등은 감소한다는 것을 결과를 미루어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집과 적응이 역할갈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가족체계 자원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가족체계 자원을 역할갈등이라는 스트레스에 대한 위기에방의 차원에서 다루었는데, 한편으로는 위기를 조절하는 대처수단으로서 다루어지기도 한다(이현옥등, 1989). 그러나 가족체계 자원과 대처간의 인과적 관계 방향은 스트레스 이론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며, 대처의 결과가 다시 가족 자원의 일부분으로 환원된다고 본다(김영희, 1992). 그러므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가족체계 자원을 위기전의 자원개념으로서와 위기후의 대처개념으로서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강성희(1989). 취업주부의 직무만족도와 역할갈등도 연구 사무직 여성과 전문직 여성의 비교,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 2) 강인, 김태현(1990).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03-117.
- 3)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4) 김득성, 김수연(1993).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의 선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19권, 1-9.
- 5) 김수연, 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순환모델의 선형성 대 곡선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6) 김순옥(1973).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석사학위 논문.
- 7) 김영희(1992). 맞벌이부부 가족에 있어서의 일과가정생활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271-284.
- 8)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9)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2(1). 112-124.
- 10) 박초아(1987). 청년기 대학생 자녀와 부모간의 가치합의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적응성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2) 옥선화, 정민자(1984).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79-92.
- 13) 이동원(1976).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문총. 27. 229-266.
- 14) 이숙현, 민혜영(1992). 가족체계 유형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논집 6. 215-226.
- 15) 이현옥, 김양희, 이경희, 홍병숙(1989). 맞벌이

- 가정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총. 95-118.
- 16) 임정빈, 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 (1). 71-94.
 - 17) 정민자(1992). 임상-정상가족의 가족 체계유형 및 가족 스트레스, 가족자원과 대응전략 관련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189-218.
 - 18) 전영자(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3.
 - 19) 조병은(1993). 가족의 위기와 해체, 가족학. 한국 가족학 연구회편. 서울: 하우.
 - 20) 최규련(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61-84.
 - 21) 최동숙(1989).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65-179.
 - 22) 홍성애(1988). 가족환경과 가족체계 상호작용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3)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7-447.
 - 24) Beavers, W. R., Hampson, R. B. & Hulgus, V. F. (1985). Commentary: The Beavers systems approach to family assessment. *Family Process*, 24. 398-405.
 - 25)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 change*, 2nd Edition. Scott: Foresman & Company.
 - 26) Garbarino, J., Sebes, J. & Schellenbach, I. (1984). Families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5. 174-1983.
 - 27) Green, R. G., Harris, R. N., Forte, J. A., Robinson, M. R. (1991). Evaluating FACES III and Circumplex Model: 2440 Families. *Family Process*, 30. 55-73.
 - 28) Green, R. G., Kolevzon, M. S. & Vosler, N. R. (1985). The Beavers-Tiberlawn Model of family competence and Circumplex Model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eparate but equal? *Family Process*, 24. 85-398.
 - 29) Hall, D. T. (1972). A Model of coping with role conflict: The role behavior of college educated wome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
 - 30) Hampson, R. B., Hulgus, Y. F. & Beavers, W. R. (1991). Comparison of self-report measures of Beavers system model and Olson's Circumplex Model. *J. of Family Psychology*. 326-340.
 - 31) Hansen, D. A. & Johnson, V. A. Rethinking family stress theory: Definitional aspect. In Burr, W. R., Hill, R., Nye, I., Reiss, I.,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1). New York: Free Press.
 - 32) Holahan, C. K. & Gilbert, L. A. (1979). Conflict between major life roles: Women and men in dual career couples. *Human Relations*. 32. 451-467.
 - 33) Hundleby, J. D. & Mercer, G. W. (1987). Family and friends as social environments and their relationship to young adolescents use of alcohol, tobacco and marijuana. *J. M. F.* 151-164.
 - 34) Keith, P. M. & Schafer, R. P. (1980). Role strain and depression in two 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29. 483-488.
 - 35) Kelley, R. F & Voydanoff, P. (1985). Work/family strain among employed parents. *Family Relations*. 34. 367-374.
 - 36) Lavee, Y. & Olson, D. H. (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 M. F.* 53. 786-798.
 - 37) Lee, C. (1988). Theories of family adaptability: Toward a synthesis of Olsons Circumplex and Beavers systems models. *Family Process* 27. 73-85.
 - 38) Miller, I. W., Epstein, N. B., Bishop, D. S. & Keitner, G. I(1985).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Reliability and validity. *J. of Marital*

- and Family Therapy*, 11, 345-356.
- 39) Noller, P. & Shum, D. (1990). The couple version of FACES III: Validity and reliability. *J. of Family Psychology*, 13, 440-451.
- 40) Olson, D. H. (1986). Circumplex Model V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25, 337-351.
- 41) Olson, D. H. (1991). Commentary: Three-Dimensional(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 74-79.
- 42) Olson, D. H., Porter, J., Lavee, Y. (1985).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 43)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44)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45) Perosa, Z. M. & Perosa, S. L. (1990). The use of bipola item format for FACES III. *J.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6, 187-199.
- 46) Pratt, D. M. & Hansen, J. C. (1987). A Test of the curvilinear hypothesis with FACESII & FACES III. *J.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3, 387-392.
- 47) Skinner, D. A. (1980). Dual-career family stress and coping: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29, 473-480.
- 48) Stanley, S. C., Hunt, J. G. & Hunt, L. L. (1986). The deprivation of husbands in dual-earner husbands. *J. of family Issues*, 7, 3-20.
- 49) Voydanoff, P. (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 and work/family conflict. *J. M. F.* 50.
- 50) Voydanoff, P & Kelly, R. F. (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 M. F.* 46, 881-892.
- 51) Walker, L. S., McLaughlin, F. J. & Greene, J. W. (1988). Function illness and family function: a comparison of healthy and somaticizing adolescents. *Family Process*, 27, 317-325.
- 52) Walter, C. M. & Mckenry, P. C. (1985).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rural and urban employes mothers: A research note. *J. M. F.* 47, 1067-1071.